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황영현* · 정도범** · 송용준*** · 김성진**** · 김상민*****

요약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의 증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로써 창조경제타운을 개발도상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현되고 혁신형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선진국의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세계은행 등과 협력하여 실제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필요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글로벌로 확대 시 필요한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선-후진국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한 형태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개발도상국, 글로벌 혁신 플랫폼

I.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의 발전은 사회, 문화, 경제 등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순식간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을 제대로 적용한 미국의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은 최근 십여 년 동안에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보유한 성공적인 모델이 된 반면,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의 다른 쪽에 있는 국가들은 인터넷의 보급은 물론 전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못해 정보화의 물결에 급격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세계은행 등을 설립하고, 많은 NGO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성장의 모멘텀(momentum)을 찾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 황영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단장, Email: younghunh@kisti.re.kr

** 정도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확산실 선임연구원, Email: dbchung@kisti.re.kr (교신저자)

*** 송용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확산실 실장, Email: bmdesigner@kisti.re.kr

**** 김성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확산실 선임연구원, Email: sungjin.kim@kisti.re.kr

***** 김상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확산실 연구원, Email: ksm4332@kisti.re.kr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저비용의 유용한 발명품들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추세지만, 이러한 지원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생력과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의 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면, 이를 선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멘토링하여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선진국의 자본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을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II. 기존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사회개발 위주의 개발협력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빈곤 감소, 보편적인 초등교육, 양성 평등 증진, 유아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증진, HIV/AIDS·말라리아 퇴치 등 사회개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임소영 외, 2013).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한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등장하였고, 개발도상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중심의 지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은 기업 활동의 근간으로, 투자 촉진,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의 주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과 같이 무조건 거대 기술보다 기술을 적용하는 지역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도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끊임없는 지원을 부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조직과 업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오늘날, 이러한 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이 처해 있는 상대적으로 불결하고 불편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의지가 있다면, 많은 새로운 발명들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이지만,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진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전문가들이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인 기술 혁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전 인류가 함께 해결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II.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제안하기 전, 플랫폼의 개념 및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모델인 우리나라의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란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오늘날 플랫폼의 활용은 개방형 혁신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이승환 외, 2013; 정도범 외, 2015; 최병삼 외, 2014). 이에 따라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역할과 함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화·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으로 연결하는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창의도전 문화 확산, 혁신 활동 증가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다(정도범 외, 2015).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9월 30일 오픈되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통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이 창출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모든 수익이 분배되는 점에서 해외의 다른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차별화되며, 따라서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 설명되고 있다(정도범 외, 2015).

앞에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는데, 해외의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많은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들(자본주의형 접근 방식)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제안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수익 창출로 연결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 국민들에게는 개념조차 생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플랫폼은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을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명칭을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자본주의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및 글로벌 혁신 플랫폼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비교

구분	자본주의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창조경제타운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	글로벌 혁신 플랫폼
설립 주체	민간 주도	정부 주도	국제기구 주도
지원 대상	우수한 아이디어 제안자	모든 아이디어 제안자	모든 개발도상국의 아이디어 제안자
운영 방향	우수한 아이디어의 선별 지원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구체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 강화	모든 아이디어의 발전·구체화 아이디어 제안자의 역량 강화
아이디어 멘토링	VC 전문가	재능기부 형태의 전문가	재능기부 형태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전문가
사업화 지원	직접 제작 및 벤처캐피탈(VC) 연계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부처/민간 연계	시제품 제작, 자금, 유통판로,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글로벌 지원 연계
수익 분배	아이디어 제안자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한 플랫폼 참여자	아이디어 제안자	아이디어 제안자 (개발을 선진국에서 하는 경우 일부 수익 배분 가능)
핵심 가치	수익 창출	창의도전 문화 확산	개발도상국 혁신 문화 확산 및 현안 해결

IV.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주요 프로세스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주요 프로세스는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크게 ① 아이디어 발상, ② 아이디어 제안, ③ 아이디어 육성, ④ 아이디어 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정도범 외, 2015).



(그림 1)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프로세스

1) ‘아이디어 발상’ 단계

창조경제타운은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으로써 현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회원들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혁신 플랫폼도 먼저 많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찬 외(2015)는 ‘와서 머물게 하기’를 플랫폼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와서 머물고 싶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각 개발도상국의 주요 현안 및 선진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등에 관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는 아직 아이디어를 보유하지 않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 및 문제해결 사례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요 현안을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신 과학기술 트렌드 및 이슈를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의적인 혁신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혁신 플랫폼은 사회문제 해결, 기술 혁신 등을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가치화하기 목적으로 국민들이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아이디어 제안’ 단계

창조경제타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 사업화나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소요되는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절차도 매우 쉽고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처음 아이디어 제안 시 아이디어를 멘토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 많은 회원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아이디어 제안’ 단계에서도 국민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이디어의 제안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선진국의 지원금 일부를 글로벌 혁신 플랫폼에 투자하여 보상금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의 제안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요구되며, 개방형 플랫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협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도상국 아이디어의 일부를 선정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글로벌 혁신 플랫폼은 창조경제타운처럼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한 종합 창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아이디어 육성’ 단계

해외의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과 가장 차별화된 창조경제타운의 핵심적인 역할이 온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이다. 창조경제타운은 제안된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화되고 제품과 서비스로 실현 가능하도록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를 보유하고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 창업을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권 권리화, 자금 연계, 마케팅 전략 등을 제시하고, 미흡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정도범 외, 2015).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사업화 창업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아이디어 육성’ 단계에서는 온라인 멘토링을 위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관련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주도로 선진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재능 기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의 전문가들의 멘토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초창기에는 일부 전문가에 대한 시상 등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아이디어 육성 단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자생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멘토링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 조건 등과 함께 온라인 교육 동영상도 제공함으로써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확대되고 아이디어가 보다 가치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 육성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연계한다. 이를 통해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자금 및 유통판로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팅,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아이디어 사업화’ 단계에서도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정부에서도 자생적으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혁신 플랫폼에서는 선진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코멘트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초창기에는 선진국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일부 수익은 분배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업화 지원보다는 일부 수익 분배를 통해 선진국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화된 아이디어 성공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대표적인 사례인 ‘창조경제타운’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단순히 자금, 식량, 교육 등의 지원보다는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플랫폼의 활용은 사업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수이며, 따라서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어려운 점도 존재할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글로벌 혁신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언어 번역기,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도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글로벌 혁신 플랫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니즈 분석, 기존 창조경제타운 모델의 효과 분석, 글로벌 혁신 플랫폼의 세부사항 정의 등 많은 추가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이 자생적으로 경제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것이다.

참고문헌

-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 (2014),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사례 분석과 적용 가능성 탐색”, 「기술혁신학회지」, 17(2): 309-333.
- 윤지웅, 이호규 (2013),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측정범위와 효과 분석”, 「사회과학연구」, 39(1): 1-19.
- 이도형 (2015),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교류·협업 공간 활성화」, 연구보고 2015-04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임소영, 김계환, 강지현, 윤정현, 민영진 (2013),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정책자료 2013-187, 산업연구원.
- 이승환, 김창욱, 박성민, 고덕기 (2013), 「혁신형 창업 활성화의 비결, 플랫폼」, CEO Information (제909호), 삼성경제연구소.
- 정도범, 김성진, 송용준, 황영현 (2015),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현황에 관한 연구: 창조경제타운의 확산을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5(4): 37-44.
- 정도범, 황영현, 송용준, 김성진 (2015),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에 관한 연구: KISTI의 창조경제타운을 중심으로”, 2015년도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 학술대회.
- 최병삼, 김창욱, 조원영 (2014), 「플랫폼, 경영을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 필 사이먼 (2013), 「플랫폼의 시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켰나」, 제이펍.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 「아이디어 사업화, 창조경제타운에서 길을 찾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창조경제지원사업단.

나인시그마(NineSigma), <http://www.ninesigma.com>
이노센티브(InnoCentive), <http://www.innocentive.com>
창조경제타운(Creative Economy Town), <http://www.creativekorea.or.kr>
캐글(Kaggle), <http://www.kaggle.com>
퀴키(Quirky), <http://www.quirky.com>
킵스타터(KickStarter), <http://www.kickstarter.com>
테크숍(TechShop), <http://www.techshop.ws>
Y 콤비네이터(Y Combinator), <http://www.ycombinator.com>